

무극보양(無極補養) 뜸

내 몸이 약 창고라는 말을 굳게 신봉하는 나. 나이 들고는 병원을 멀리하고자 했었다. 지 몸이 지를 알아서 하겠거니... 이제 환갑을 넘기고도 두 해를 넘겨 세 해로 접어드는 나. 송기원의 「문구 성님」에 나오는 시구 말마따나 나도 옛날로 치면 오래 산거다. 이제 죽을 병 걸리면 고이 죽는 게 인간다운 도리겠다. 그러나 고이죽기도 쉽지 않은 일... 아니, 지난(至難)한 일이라... 고이 죽기 위해, 현대의학의 횡포를 피해 죽기 위해 뜸자리를 받아왔다. 구당 김남수옹이 우리 몸 360개의 혈 중에서 열 몇 개 골라낸 무극보양 뜸자리다. 어떤 죽을 병이 걸려도 병원은 이제 안 가리라 다짐해본다.

집에 돌아와 침구책을 펴놓고 혈자리 이름을 확인해 보았다. 거혈(巨闕), 중완(中腕), 배꼽 아래는 기해(氣海), 관원(關元), 중극(中極)혈이다. 다 소화기와 혈액순환, 신장 쪽에 좋다는 혈이다. 그 외에도 정수리부근의 백회(百會), 무릎 부근의 삼리(三里), 팔꿈치 부근의 곡지(曲池), 또 등어리에 다섯 군데의 혈자리를 받아왔다. 무병장수 뜸자리란다.

뜸이란 게 자리만 알면 누구나 손쉽게, 돈 안들이고 치료할 수 있는 민간요법인 것이 오늘날과 같은 전문가 신화주의 시대에는 천대받는 이유일 것이다. 감지하는 일찍이 생명 생태 의학으로서의 뜸의 가치를 역설한 바 있고 나 또한 근자에 그의 책을 읽고 뜸과 침에 노년의 내 목숨을 기탁하려 맘먹고 있던 중 오늘 결행을 한 것이다.

오늘 뜸 치료방에서 감동스러웠던 것은 뜸 놓는 사람들이 모두 자원 봉사자들이고 일체 돈을 받지 않는다는 점, 그리고 장애인, 기초생활대상자들 우선으로 진료를 한다는 점이다. 장애도 없고 기초생활 대상자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은 그분들의 진료가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점 또한 감동스러웠다. 오늘 새벽 여섯 시 반에 집에서 나와 동대문에 있는 그곳까지 전철로 한 시간 반을 가서 세 시간을 기다렸다가 뜸자리를 받았다. 그분들은 예약이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예약이 안 된다. 가서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. 또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 중에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먼저다. 이곳이야말로 꼬래비가 맨 위가 되는 기위친정(己位親政) 후천개벽 세상의 모델이다.

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민간요법인 뜸 치료를 담당하는 침구사 제도가 1960년에 없어진 후에 아직까지도 부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, 그 이유는 기득권자인 (한)의사들과 정부때문이라는 것이다.

여하튼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있으면 또 포스팅을 하겠삼.